카메라·망원경 들고 3년째 인양작업 낱낱이 기록

진도 동거차도-인양 감시 가족들

단원고 1~10반 학부모들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아빠의 가슴은 미어지는구나"

"아빠가 지켜보고 있단다, 아가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든 달이 뜨든 아빠가 보고 있단다. 저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 허튼 짓을 할 수 없지." 영석이 아빠 오병환(46)씨가 저 아래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선착장 주변 마을에서 10분가량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닿는 이곳 정상은 맹골수도 끄트머리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참사 발생 초기 조명탄 오발로 산에 불이나 키 큰 나무들이 말라 죽으면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됐다. 아빠들은 "정부가 잘한 일이라곤 이 산에 불놓은 것 뿐"이라며 혀를 찼다.

아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벗겨줄 세월호와 아빠들의 거리는 1㎞가량. 인양 작업에 나선 크레인선이나 잠수부들이 휴식하는 또 다른 배의 윤곽이 육안으로도 또렷이 보인다. 아빠들이 준비한 망원경과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거리는 한층 가까워진다. 잠수사들의 손짓, 발짓부터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물건의 종류까지 환히 들여다보인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8일은 단원고 7반 아빠들이 당번을 맡아 인양작업을 지켜본다. 영석이 아빠 병환씨, 재강이 아빠 허흡씨 그리고 생존자 소희양 아빠 박윤수씨가 이곳 동거차도에서 망원경으로 인양작업을 들여다본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단원고 1~10반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동거차도 산봉우리를 지킨다.

아빠들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저들에게' 의지를 보여주려고 산봉우리 정상에 움막을 지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실을 밝혀야할 정부가 진실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그날의 진실'을 안고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경고하고 낱낱이 기록하기 위해 아빠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안산에서 철근과 천막, 비닐 등의 자재를 차에 싣고 진도 서망항에 도착한 뒤 동거차도로 건너왔다. 지게에 짐을 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 손으로 기둥을 세우고 비닐과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엮었다. 그 움막 안에서 아빠들은 햇수로 3년째를 맞이했다.

두 눈과 카메라, 망원경으로 작업 현장을 보고 작업 시간, 건져 올린 내용물, 날씨, 작업 인원, 특이 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아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아빠들이 저 마을 밑에서부터 전기를 끌어와 24시간 동안 움막을 환하게 밝혀놓는 이유다. /동거차도=김형호기자 khh@

세월호 침몰 999일째인 8일 새벽 진도 동거차도의 산 정상에 설치된 천막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침몰해역의 상황을 촬영, 기록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정부와 정치권에 더이상 기대 안해 바닷속 아이들 하루빨리 꺼내주길"

팽목항-미수습자 9명 가족들

"1000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념일도 아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98일 째인 지난 7일,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는 바람마저 불지 않았다. 가족대기실에서 만난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울먹이며 딸을 떠올렸다. "내 딸 너무 착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프고 약해서 남들보다 철이 빨리 들었어요. 부모 속을 썩인 것도 어렸을 때 아픈 것뿐이에요."

눈물이 말라 버린 탓일까. 울먹였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다윤이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윤이는 지금 대학생이 돼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남자친구도 만났을 것"이라며, 딸이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권오복씨는 미수습자인 권재근씨의 형이자, 역시 미수습자인 혁규군의 삼촌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팽목항을 지키고 있다. 권씨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느라 고생하던 동생은 이제 막 기반을 잡아 제주도에 이사하려고 세월호를 탔는데 사고가 났다"고 탄식했다. 그는 "6살이었던 조카 혁규는 참 예뻤다. 거리에 나가면 혁규 얼굴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봤다"며 조카를 자랑했다.

미수습자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화씨는 지난해 3월부터 팽목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씨는 "은화는 평소에 수학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1문제를 몇 시간을 고민해 풀 만큼 수학을 좋아해 대학도 수학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은화가 대학 졸업 후 회계공무원이 되면 결혼하지 않고 엄마랑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했다"고 딸을 그리워했다. 그렇게 살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지킬 수가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다. 지난 5일 20번째 생일을 맞은, 축구와 볼링을 좋아한 박영인(단원고 2년) 군은 아직도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4대 독자로 음악과 글쓰기를 좋아한 남현철(단원고 2년)군, 학교 뒷산에 백년초를 가꿔 그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한 양승진 선생님, 제자들의 탈출을 돕고 자신은 탈출하지 못한 고창석 선생님, 어렸을 때 헤어진 아들 경태씨와 제주도에서 함께 살려고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이영숙씨 등도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

진도 팽목항에서 이들을 1000일째 기다리는 가족들은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 정부와 정치권에는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그저 싸늘한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을 하루 빨리 꺼내줬으면 한다"고 눈물지었다. /팽목항=김한영기자 young@

어서 진실 밝혀져 아이들 쉴 수 있길…국화꽃·선물·편지 수북

안산-'416 기억교실'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 3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 답답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고…. 하루빨리 배가 인양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998일째인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416기억교실'에서 만난 2학년9반 조은정 양의 어머니 박정화씨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2학년1반 김수진 양의 어머니 남영미씨도 "진실이 밝혀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수습자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서 시간이 흘러 하늘나라에서 우리 딸 수진이를 만나고 싶다"고 고개를 떨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머물렀던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416기억교실에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한 의자, 사물함, 교탁 등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당번을 정해 이곳 기억교실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방문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의 책상에는 유가족과 지인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선물, 편지 등이 가득했다.

2학년4반 교실에 놓인 노트에는 "세종시에서 왔단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 대통령 탄핵 바로 다음날 이곳을 방문한다. 꼭 기억할게. 그리고 잊지 않을게. 절대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방명록에는 '4·16 잊지 않겠다', '하늘에서도 행복해야 한다'는 기원이 가득했다.

416기억교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단원고는 적막했다. 학교 입구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보내온 목면나무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단원고는 후배들을 위해 희생자들의 흔적을 일부러 지웠다. 교실과 교무실, 체육관, 음악실 등은 모두 리모델링했다. 미수습 학생들의 책상만은 교장실로 옮겨 주인을 기다렸다.

정부가 안산시 화랑유원지 안에 마련해 놓은 합동분향소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정적이 분향소를 에워싸고 있었다. 참배객들의 발길도 뜸해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다. 분향소 한쪽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 앞에는 국화꽃과 선물, 편지, 간식들이 수북이 쌓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분향소에서 만난 안산 시민 김희정(여·40)씨는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됐는데 이제야 아이들을 보러왔다"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어서 진실이 밝혀져서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삼켰다. /안산=전은재기자 ej6621@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416기억교실'에는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않으려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산=전은재기자 ej6621@